

5》 4% 정원 감축안, 구성원 논의 언제쯤?



8》 단행본 대여 감소추세 속 '전자도서관'



학사다이어리-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면제 신청

- 신청대상: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대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
- 신청기간: 10월 3일(월) ~ 10월 7일(금)
- ※ 면제서류 접수기간은 단과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 과목이수만으로 면제가 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제출서류: 졸업능력인증제도 면제신청서 1부 / 자격증 또는 증빙서류 원본과 사본 1부

'교육·재정' 하락 지속 세부지표 절반 하락

<32개 중 16개>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교육여건 및 재정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우리학교의 종합순위가 한 계단 상승해 공동 9위를 기록했지만, 평가 영역 4개 부문의 점수는 모두 하락했다. 종합점수 기준으로는 2013년 208점에서 올해 200점으로 하락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홈페이지 공시 기준) 세부지표 순위로는 전체 32개 중 절반인 16개가 하락했고, 10개 유지, 상승한 지표는 5개에 그쳤다. 세부지표로만 따지면 멎은은 종합순위 상승이다.

평가영역 별로 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의 점수 하락폭이 가장 커졌다. 전년도 56.4점에서 4.5점 하락한 51.9점을 기록했다. 순위 역시 한 계단 하락한 18위였다. 지난 해부터 불거진 '재정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부문 내 세부지표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입 중 납입금 비중',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이다. 두 지표는 지난 해에도 40위권 밖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40위 내로 진입하지 못했다.

세입 중 납입금 비중에서 우리대학은 58.6%로 2013년 59.4%에서 0.8%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금 비중은 낮을수록 등록금의 존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상위 10개 대학(우리대학 포함) 중 특수 목적 대학인 포스텍과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8개 대학의 평균 비중인 46.9%에 비해서는 10% 포인트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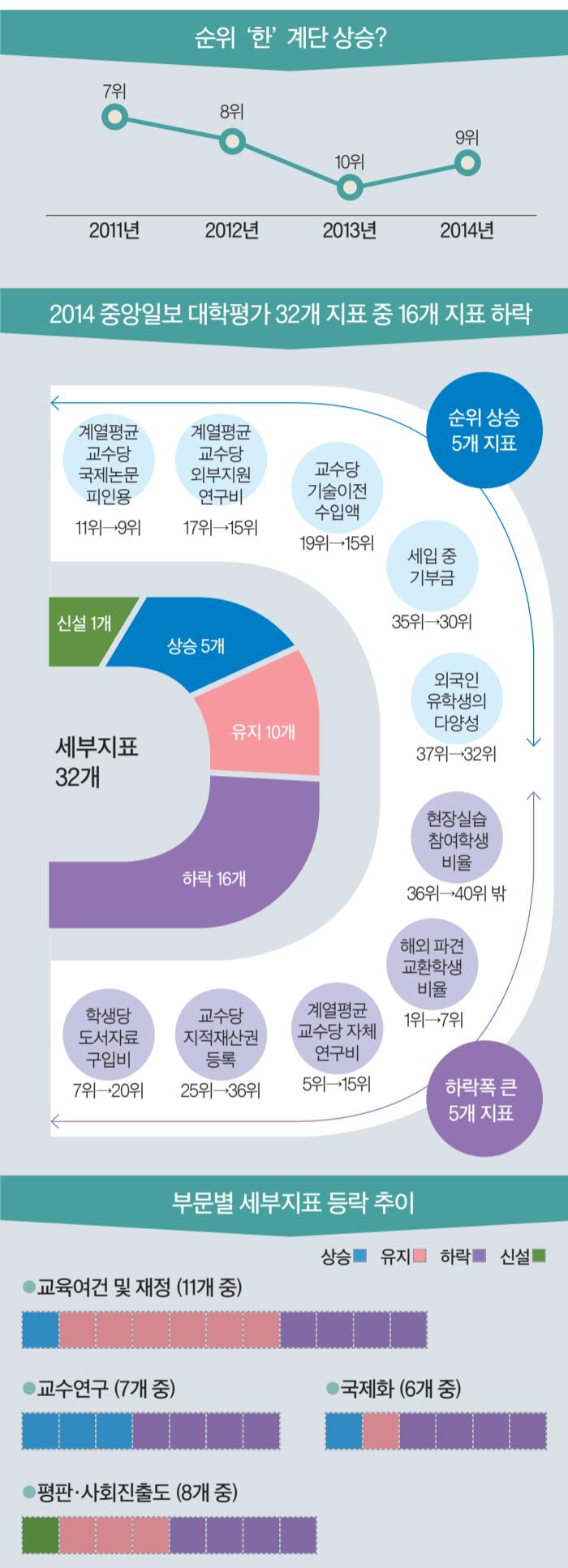
교육비 지급률의 경우도 우리학교는 18.7%로(이 수치가 높을수록 대학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납입금비중 (%)	교육비지급률 (%)
성균관대	47.7	225
고려대	50.4	213
서울대	23.2	586
연세대	35.5	292
한양대	61.5	199
중앙대	47.5	213
서강대	51.2	210
경희대	58.6	187
평균	46.9	265.6

이런 상황에서 재정수의 다변화의 주요 과제인 '세입 중 기부금 비중'의 경우 순위는 5계단 상승한 30위였지만, 정작 지난해보다 비율은 0.1%pt 하락했다.

한편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20위로 13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20만 2,857원이던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가, 올해 15만 1,873원으로 약 5만 원 가까이 줄어들은 것이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역시 지난해 36위에서 올해는 40위 밖으로 밀려났고, 중도포기율 역시 4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4·5면)

▶5면으로 이어짐



노예의 도덕 혹은 주인의 도덕 : 니체 『도덕의 계보』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양대중 원광대 마음인문학 HK연구교수

프리드리히 니체가 1887년에 저술한 『도덕의 계보』는 유럽의 철학과 사회가 삶에 반하는 유약한 도덕에 의해 각인되어 있음을 서술한 책이다.

도덕의 환상을 깨려는 니체의 전략은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 되어온 가치들의 가치를 묻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던져져야 할 질문들이 바로 계보학적, 발생학적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을 통해 그가 밝히려는 것은 도덕적 가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해온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이다. 이 계보학적 질문의 기저

『도덕의 계보』는 유럽의 철학과 사회가 삶에 반하는 유약한 도덕에 의해 각인되어 있음을 서술한 책이다.

에는 이렇게 생성된 도덕적 가치들이 삶의 퇴락의 징후인지, 충만함과 긍정의 징후인지, 그리고 이 가치들이 인간 속에 잠재한 가능성들을 축진시켜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유형의 인간을 달성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을 축소시켜 왜소하고 유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물음이 깔려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 즉 "새로운 물음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오래된, 판독하기 어려운 인간도덕의 과거 사라는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니체가 말하는 도덕과 가치의 자연 발생사에 대한 탐구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중간고사로 인하여 휴간합니다

다음 제1578호는 11월 3일에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사령 <명> 수습기자

권윤지(정치외교학 2014)
박기윤(경영학 2014)
방누리(식품영양학 2014)
이시은(컴퓨터 공학 2011)

이예찬(중국어학 2014)
위자현(스페인어학 2014)
장미영(언론정보학 2014)
조재신(한국어학 2011)

시선

사설

바닥이 보이는 인내심 끌내 '소송' 가야하나

지난 7일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토대로 기숙사 수용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재학생 49만 5,060명 중 타 지역 출신 학생은 16만 2,797 명인데 비해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5만 5,088명에 불과해 고작 33.8%를 수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학교 서울캠퍸스의 경우 '학부생'만 따져봤을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수용 비율이 14.9%다. 공공기숙사가 건설돼도 24.1% 수준이다. 전국 평균에 떡없이 부족하다.

우리학교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진행해도 부족 할 공공기숙사 건축이 임대업자들의 이른바 '생존권'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허가권을 지난 동대문구청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바다난 구성원의 인내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기숙사가 건설된다고 해도, 인근에서 거주하는 자취·하숙생들이 '기숙사'로 이동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완공된 행복기숙사 입사 학생 중 48.9%는 통학하던 학생이다. 자취나 하숙 학생은 29.1%다. 통계가 입증해준다. 나아가 기숙사 경쟁률은 매년 3.5:1 내외를 기록하고 매번 탈락하는 학생 수는 2,400여 명에 달한다. 잠재적인 수요자다.

통계를 살피다 보면 현재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숙사가 지어져서 '공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공실의 이유는 '임대주택의 과도한 가격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임대업자들은 원래 한 명이 사용하던 자취방에 두 명을 살게 해서, '반값'을 받겠다는 '착한 자취방'의 조심모사 논리를 펼친다. 기가 막힐 일이다.

학교는 대화 속에서 나름의 안을 제안했다. '착한 자취방'의 규모와 수만 제대로 파악해 제시한다면, 기숙사 탈락 학생에게 학교가 직접 나서 소개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대업자들의 주장은 '500명 수용 후 2년에서 3년 동안' 연착륙할 것에서, 되려 '아예 수용인원을 500명으로 줄일 것'으로 바뀌었다. 안하무인이다. 동대문구청은 이 상황에서 학교와 주민 간의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말한다. 말이 상생이지 대학 측의 양보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다.

우리학교 구성원은 그동안 지역사회 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공공기숙사 문제에서도 '공청회'를 요구해오자,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마련했다.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인내하고 소통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일련의 상생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없이, 다시 '조정'을 이야기한다면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회기동에 거주하는 학생 수만 2,076명인 우리학교는 이 지역의 주민이 아닌가? 3,280명의 공동민원은 100여 명에 불과한 주민들의 민원보다 무게가 가벼운 것인가?

최근 판결 결과를 감안할 때, 공공기숙사 건축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구성원은 지역사회와 쌓아온 관계를 위해, 거듭 대화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상생'의 책임을 대학에 떠미는 것은 무책임하다. 임대업자들은 앞서 제시한 객관적 자료를 반박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동대문구청은 조정의 중심에 있는 만큼, 공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상생이다.

우리학교 등 4개 대학 총학생회 “언론사 대학평가 반대”

미디어 여론동향 | 2014. 9. 29~10. 12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경희의료원은 지난 2일 개원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경희의료원, 개원 43주년 기념식 개최/이데일리/2014.10.6) 기념식에는 유기홍 의무부총장과 임영진 의료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 각종 시상,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H1로고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기념식을 통해 2010년에 선포한 비전인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병원"으로 발전할



이주의 주제 - 대학 평가 순위 상승의 이면

대학의 '종합순위 상승' 이메일 씁쓸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경영학과 강의를 듣길 희망하는 국제캠퍼스 학생을 위한 화상강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학기 기자 역시 경영학에 관심이 있어, 회계원리 수업을 화상강의로 듣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강의실이 아닌 서울캠퍼스에 있는 교수님과의 소통은 쉽지 않다. 무언카메라도 정확히 강의하는 부분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 칠판에 적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는 것이 허공인 상황에 당황할 때도 있다. 화상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입을 모아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교수님과 면 대면으로 듣는 수업에 비해 강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받지 못한다"고 전한다.

우리학교는 올해 초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을 통해 대형강의 증설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강의와 화상강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강의가 오프라인강의보다 집중도가 떨어진다든지, 앞서 이야기한 화상강의처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든지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 이런 와중에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여건 부문의 '온라인 강의공개 강화 비율' 순위가 1등인 사실은 씁쓸하다. 심지어 웹메일을 통해 우

리학교의 종합순위가 한 계단 올랐고, 교육역량이 증대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마주했을 때는 참담했다. 정량지표만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학교의 모습에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대학생들은 '대학평가거부선언'을 통해 평가를 주최하는 언론사와 기관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지표만 있을 뿐 속사정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순위 한 계단 상승을 홍보하는 대학에 오히려 초점이 옮겨질 필요성을 느낀다.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은 강좌 수가 '몇 개'인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강좌 수가 몇 개인지에 달려있다. 평가를 통해 이를 반추하지 못한 채 외면한다면, 문제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뒷으로 전가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상당하다. '미래대학리포트'를 위한 질적 자료연구과정 중 80명의 FGI참가자를 선발하는데 무려 6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지난 여름방학 국제캠퍼스 총학생회가 진행한 '2014 민족자주경희 학자자안 인식조사'는 SNS를 통해 급하게 진행한 것임에도, 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일이 '한 차례'가 아닌, 지속적인 일이 될 때 교육여건 개선의 진정한 단초를 쌓을 수 있다. 대학본부가 주장하는 평가에서 거둔 교육역량 강화가, 최소한 강의하는 교수도 제대로 비춰주지도 못하는 화상강의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자"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경희의학상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경희의학상 금상은 소화기내과 이창근 교수가 수상했다.

우리학교와 동국대, 성공회대, 한양대 등 4개 대학 총학생회는 6일 오후 중앙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경희대 등 4개 총학생회 "언론사 대학평가 반대"/뉴시스/2014.10.6) 이들은 "지난달 26일 고려대에 이어 4개 대학 총학생회도 대학평가 거부선언에 동참했고, 학생들도 몇몇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줄 세우는 지금의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대학종합평가는 대학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특정 기준에 따라 일별로 세우는 평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 동대문구는 평화의전당에서 '2014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실전)을 방불케 하는 동대문구 화재 훈련/아시아경제/2014.10.8) 이번 훈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간 실질적인 공조·대응·수습과 복구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서, 의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 ‘의지’와 ‘목표’에 있다

세시봉

진척없는 정원 감축안

권오은 (편집장)



#1. 올해 초부터 교육부가 개인 트레이너로 나서서 대학들에게 '강제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다. 미래의 학령인구를 감안했을 때 지금 대학들의 체중(학생정원)이 과대하다는 게 이유다. 처음에는 먹을 것(산학 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특성화사업(CK 사업) 등의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갖고 옥죄더니, 얼마 전 평가조인을 발표해 강제로 지방흡입수술(5단계 평가)을 통한 '강제' 정원감축(까지 꺼내들었다).

#2. 마지못해 우리학교는 체중을 "4% 감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잠잠하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내년에 2.4%를 전체적으로 감량하고, 그 다음에 1.6%는 '군살'만 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2.4%를 몸 전체에서 '똑같이' 감량해도, 신체불균형이 찾아올 것 같아 걱정이다. 더구나 무엇이 '군살'인지, 어떻게 뺄 것인지는 여전히 고민이다.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이어트 실패로 가는 전형이다.

교육부가 "4%만 빼면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정상체중을 위하는 것은 아니다

#3. 40Kg감량(이만큼 뺄 살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을 때 비결은, '원푸드 다이어트'나 '특별한 헬스 트레이닝'이 아니라 '빼야 한다는 의지'와 '언제까지 얼마나 뺄지를 정하는 목표'였다. 그러니까 우리학교로 치면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정원감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또 갑자기 굶고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토대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학교의 학생규모는 전국 최대다. 학생 수가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던 시절에 열심히 몸집을 키운 덕이다. 어느 순간부터 비대해진 규모는 몸에 무리로 작용했지만, 더 크고 나면 빼질 젖살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교육여건으로 보니, 행정구조로 보니 이제 살은 '반드시' 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살을 얼마나 빼야 할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개인 트레이너로 나선 교육부가 "4%만 빼면 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학교의 정상체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학교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4. 그래서 이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난 학기부터 이야기했으나, 여전히 논의는 '머릿속'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리다가 강제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엄한 '취업률'이라는 운동으로 군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나 뼈'(대학의 근본인 학문)를 상하게 할까 걱정이다. 그러니 풍부한 다이어트 경험자로서 당부하고 싶다. 우리학교의 적정 체중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앞으로 정원감축방법에 대해 구성원과 나눠달라. 참고로 살은 빼면 끝이 아니라, '요요'를 더 조심해야 한다. 열심히 노력해 얻은 결과가 아니면, 부작용은 금세 찾아온다.

PS - 일개 학생은 학교를 걱정하는 마음에 인생 최대 비밀인 '40Kg 전설'도 풀어놓았다. 학교는 구성원과 다이어트 계획도 공유하지 못할 만큼 '비밀'이 많을까?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
도 독자 여러분
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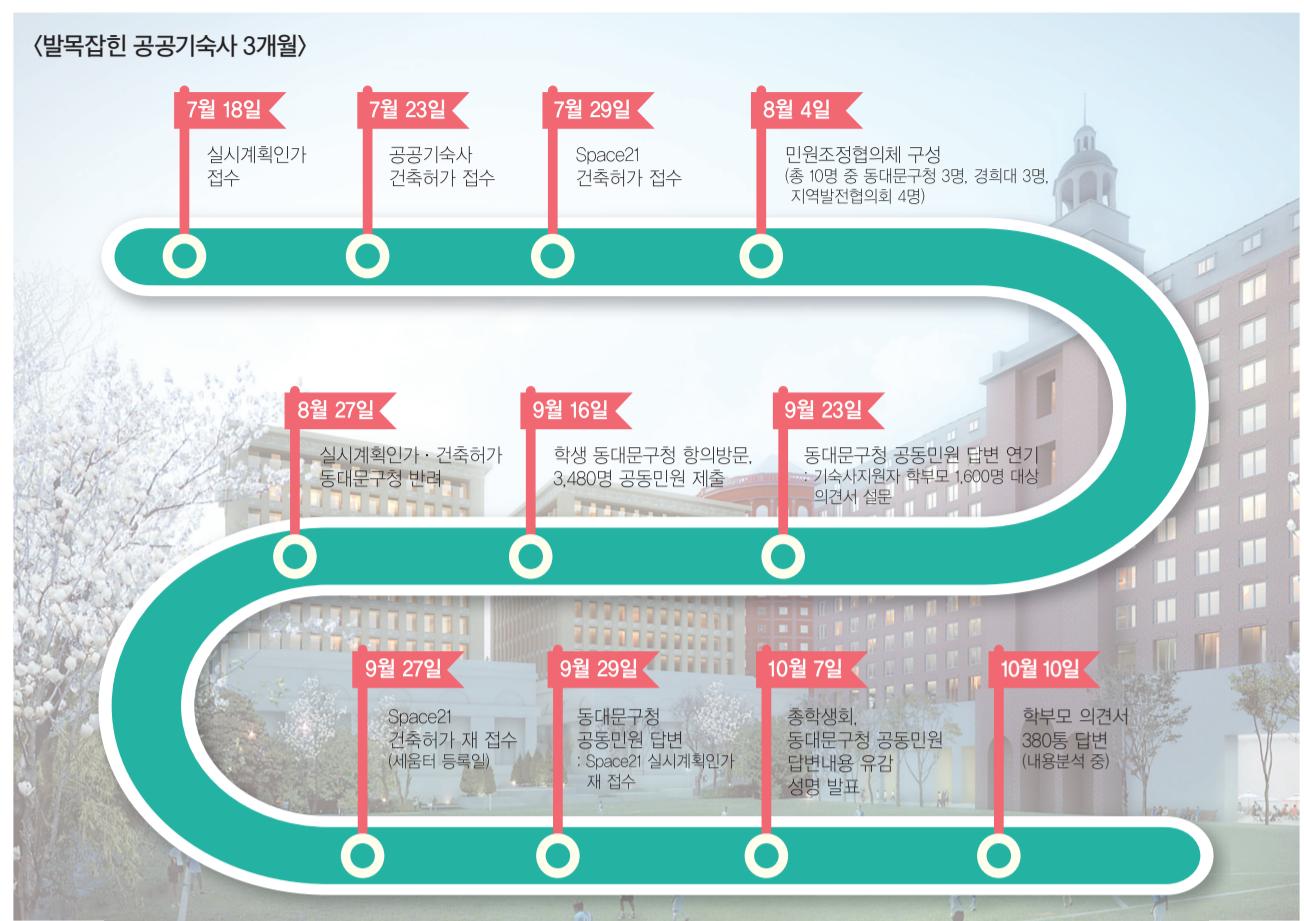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인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수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막왕대로 1731(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인·허가 반려 핵심 '주민 민원', 법적 근거 없다

공공기숙사 건립 지역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서울】 지난달 16일 학생 3,480명이 제출한 기숙사 신축 촉구 공동민원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답변이 지난달 30일 나왔다. 답변내용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기숙사는 관계법령과 건축인가(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져야 가능'하며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 들어 반려한 것은 아니다.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하게 되면 민원해소 방안과 함께 가능한 빠르게 해결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했다.

총학, 공동민원 답변 반박

'주민요구 이익관철이 목적'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지난 7일 '동대문 구청의 답변, 원칙 없음이 실망스럽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은 상생의 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요구는 상생이 아닌 이의 관철을 목적으로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원답변 내용처럼 동대문구청은 현재

건축 인·허가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조건을 꼽고 있다. 하지만 반려과정의 시점을 살펴보면, '민원' 조정이 핵심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학교는 공공기숙사관련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접수를 각각 지난 7월 18일과 23일 접수했다. 이후 지난 8월 4일부터 동대문구청과 학교, 지역발전협의회의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민원조정협의체를 통해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8월 26일 학교와 지역발전협의회간 논의도 소득이 없었고, 다음날인 27일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를 동대문구청이 반려했다. 현재까지 공공기숙사를 두고 조정과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입장차'만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는 기속행위(羈束行為), 즉 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민원은 반려 '이유'가 될 수 없다.

최근 우리학교의 기숙사 문제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주민 민원으로 기숙사 건축 인·허가가 불허된 흥의대는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법원은 흥의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흥의대가 주민 민원 해소라는 건축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다"라며 법리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동대문구청은 이달 중으로 학교와 지역발전협의회 측에 최종 조정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PACE21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숙사와 별도로 한의과대학과 이과대학이 신축되는 SPACE21사업은

건축인·허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문구청의 반려 이후 지난달 27일과 29일 각각 건축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재접수했다. 문제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 등에 제시된 조건은 지난 3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답변 내용처럼 동대문구청은 현재

원은 흥의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흥의대가 주민 민원 해소라는 건축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다"라며 법리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A. 물론 공공기숙사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도 적지 않다. 특히 경희대학교 인근 상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따라서 주민 전체의 입장 을 헤아려, 공공기숙사 건립에 힘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B. 물론 공공기숙사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도 많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공공기숙사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면 인근 상가들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는 학교발전 뿐 아니라 장래 동대문구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생존권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임대업 주민의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공실이 많은 오래된 주택 주인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때문에 누구도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렇기에 동대문구청에서 전체 주민들과 학교의 의견 듣고, 조정하고, 수렴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구정운영 방향을 '사람이 행복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로 정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동대문구는 '안전한 동대문구' 실현을 위해 안전전담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추진으로 촘촘하고 총체적인 안전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청량리 일대를 신 흥 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을 밝혔다. 청량리 일대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바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A. 현재 청량리 일대 '청량리 4재정비 촉진구역'은 지난 9월 11일자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2019년 말 완공되면 주거, 업무, 판매, 문화,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업무, 숙박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저층부는 판

매시설 특화단지로 청량리 민자역사와 연

결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부도심에 활

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회기·이문 일대 상권이 침체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때문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경희인 생활상품권을 상가연회와 함께 운영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변화'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회기·이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A. 회기·이문동은 경희대학교와 한국외

국어대학교 인근 전철역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상가가 형성되어 왔다. 이 지역이 역

세권임에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기존 상가건물의 노후화와 젊은 층이 선호

하는 특화된 상가 부족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동대문구는 그간 회기·이문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2년 회기로 일대와 2013

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앞 일대에 대해 '간

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마쳤다.

도로변 상가의 무질서한 간판 정비로 거리

미관이 크게 나아졌으며, 외대 앞 지하차도

건설, 휘경시장 정비를 통한 대규모 점포

입점, 인근 노후주택 정비, 골목길 벽화사

업 등 노후 된 건축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시정비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흥릉

농촌경제연구원을 매입하고 실버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는 흥릉 스마

트에이징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기동과 이문

동 상가들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정시장

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5학년도 동서의학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I. 모집학과 및 과정

모집학과(전공)	학위명	세부 연구 분야	모집 과정			
			석사	박사		
			신입	편입	신입	편입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한의학/의학 석·박사	동서현진/통합의학 증기세포학 신경의리학	○ ○ ○ ○ ○		
	대체보완의학전공	대체의학 석·박사	통합의학 자연요법학 신인요법학 대체보완카이로프리틱 대체보건기능생명학	○	○	
동서의과학과	식의약소재학전공	의과학 석·박사	소재생화/분유기화학 다사생화/분화학 세포생리학/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생물학	○ ○ ○ ○ ○		
	한의학전공	한의학 석·박사	신경과/임상해부학 면역·생물병리학	○ ○ ○ ○ ○		
의학영양학과	의학영양학/ 임상영양학전공	의학영양학 석·박사	질병영양/인체인상영양학 예방영양/보건영양학 면역영양/응용영양학 피부영양/기초영양학	○ ○ ○ ○ ○		

* 동서의학과 한의학/의학전공 지원자의 학문분야는 의·약학 및 생명과학분야 전공자에 한함.

II. 모집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1. 전형 안내	2014.10.13.(월) ~ 11.13.(목)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2. 원서 접수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종료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우편접수: 경기광주 우편집수 이메일접수 동서의학대학원 행정실 (구 국제경영대학원 203호)
3. 서류 제출	2014.10.20.(월) ~ 11.13.(목) 17:00 까지 (종료일 및 토, 일요일은 제외)	국제캠퍼스(수원) 지정장소 (원서접수 후 홈페이지 게시)
4. 전형 일시	2014.11.22.(토) 10:00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 http://gsm.khu.ac.kr
5. 합격자 발표	2014.12.01.(월) 16:00 예정	한·영문 전공자점수(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6. 예치금 등록	2014.12.01.(월) ~ 12.05.(금)	한·영문 등록금
7. 합격자 등록	2015.02.02.(월) ~	학점 일정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서의학대학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2015학년도 법무대학원 전기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전공(야간)

가. 석사과정

구 분	학 과	전 공
신입생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법학과 국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입법전공, 공동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편입생	전체학과	

나. 연구과정 및 특별과정

구 분	학 과	전 공
연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법학과 국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입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특별과정	한·영 법률 번역과정(법률영어, 법률번역, 법률작문, 미국법입문, 한국법입문)	

2. 지원자격

구 분

보도

파견·방문 교환학생 비율 모두 반토막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우리학교 국제화 지표 순위는 평가대상 85개 대학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위를 비롯해 5년 간 꾸준히 1위와 2위를 오가던 성적 중 가장 저조한 결과다. 눈에 띠는 하락은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과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이다. 각각 5.9%와 3.9%로 전년도보다 각각 7.0%pt와 2.9%pt 줄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한 두 지표가 7위와 3위로 낮아짐에 따라, 국제화 부문 종합순위 하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두 지표의 하락 원인에 대해 미래정책원 김성환 계장은 대학평가 지표산출 방식의 변화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김 계장은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국제교육원을 통한 어학연수생이나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학생도 전원 인정했으나, 올해는 그 수를 3분의 1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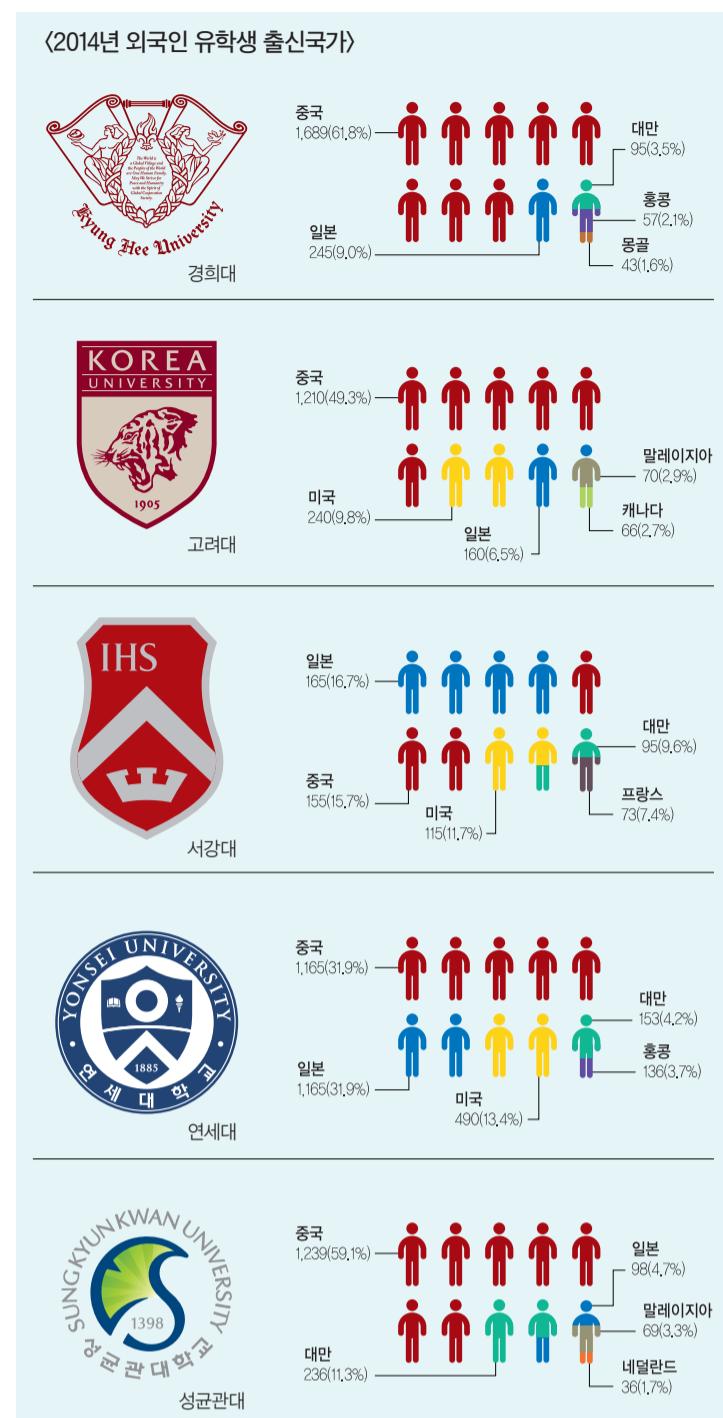
어학연수생과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연세대 역시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지표에서 작년 12.3%에서 올해 7.0%로 5.3%pt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그러나 학부 교환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대학생 유치실적'은 연세대가 2,390명에서 2,698명으로 오히려 12.9% 상승한 것에 의해 우리학교의 경우 작년 938명에서 올해 713명으로 24.0% 감소했다. 지표방법이 엄격해지면서 수치가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교환학생의 '내실'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의 경우 별 비율은 중국 61.8%, 일본 9.0%, 대만 3.5% 등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절대 다수이고,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비율이 74.3%에 이른다. 다양한 문화권에

서온 학생들과 교류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시킨다는 '국제화'의 취지가 무색하다. 반면 연세대의 경우 중국 31.9%, 일본 14.7%, 미국 13.4% 등이었고, 서강대의 경우 일본 16.7%, 중국 15.7% 미국 11.7%를 보여 대조된다.

이밖에 외국인 교수 비율은 최근 3년 중 처음으로 8% 대인 8.5%로 순위 역시 전년대비 4계단 하락했으며,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역시 전년보다 2계단 하락한 3위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강좌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영어강의 양질화도 이뤄지고 있는지 실상이 궁금하다.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해외파견 교환학생(%)
성균관대	4.6	4.0
고려대	6.1	3.0
서울대	2.2	1.0
연세대	6.9	1.6
한양대	4.3	6.3
중앙대	3.2	5.1
서강대	4.4	1.9
경희대	5.9	3.9
평균	4.7	3.3

별 비율은 중국 61.8%, 일본 9.0%, 대만 3.5% 등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절대 다수이고,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비율이 74.3%에 이른다. 다양한 문화권에

화상강의 울상, “필기내용 안 보여요”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국제】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진행되는 화상강의에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화상강의는 서울캠퍼스(서울캠) 또는 국제캠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양 캠퍼스 학생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교차 강의이다. 화상강의는 국제캠의 국제경영학과와 서울캠 경영학과가 통합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국제경영학과 학생들이 국제캠에서도 경영학과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작됐다. 또한 경영학 복수전공의 수요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도 2학기에는 회계원리·

경영정보시스템·조직행동론·생산

운영관리·서비스운영관리·인적자

원관리 총 6개의 화상강의가 개설

됐다. 현재 서울캠 오비스홀 422호

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국제캠 멀티미디어교育관 713호에서 화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상강의는 무인카메라가 교수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해 강의를 보여주고, 화상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은 서울캠으로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화상강의 시스템이 수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지현(응용수학 2013) 양은 “화면에 칠판이 비춰지지 않고 비춰져도 화질이 흐리다”며 “카메라가 많이 움직여 집중이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선예슬(의류디자인학 2014) 양은 “회계원리 과목 특성상 문제풀이 과정이 중

요한데 필기를 많이 놓치는 것이

큰 타격이다”라며 “마이크가 있지

만 실질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수업을 듣는데 서울캠 학생들에 비해 수업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수의 입장에서도 비슷하다. 회계원리 수업을 화상강의로 진행하고 있는 심규영(경영학) 교수는 “국제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이나 질문을 실시간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수업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대학 석광세 행정실장은 “장비 보완이나 교수들의 수업배정 등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어 당장의 해결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적 조사’로는 한계, 학생들 속마음 듣는다

미래대학리포트 2차 연구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인간이란 가치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과 대화하다가 공감이 가면 의지도 되고, 이후에도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 교수님과의 논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댄다’는 말이 원래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앞장서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7일 언론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가 진행됐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 전공 사이의 상관정도부터, 학내 소통, ‘시민’과 ‘어른’의 정의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80명의 FGI 참가자를 선발하는데 6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할 만큼 관심도 높았다.

FGI는 ‘미래대학리포트 - 성찰적, 윤리적, 심미적 학문공동체를 지향하는 21세기 미래 대학상’ 연구의 일환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경희 미래리포트’ 출범식에서 1차 질적연구를 시행했다

6월 20일 ‘경희 미래리포트’ 출범식에서 진행한 ‘공상다방(共想茶房)’을 통해 자유롭게 진행된 미래대학상에 대한 토론 이후,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진행하는 2차 연구다. 그동안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양적 조사’의 특성상 깊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이번에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언론정보대학원 강태완 원장은 “대학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놓쳤던 숨은 의미나 심도 깊

은 이야기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1차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담론과 현재 진행 중인 2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담론 사이에 유사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FGI 외에도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토의,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폭넓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2,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도 병행하고 있다. 연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11월 말 최종보고서가 대학본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2014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5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6회 째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혁신기적을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라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판을 거둘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수, 자구노력과 헌신으로 학생들을 기관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2014년 10월 6일(월)~11월 17일(월) 17:00

■ 대 상: 교수, 교직원

■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첨부한 공식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pr@khu.ac.kr

■ 선정절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 여 시: 2014년 12월 중 〈Magnolia 2014-1부 목련회의〉시상

■ 문 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별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의 진행기간 : 2014. 10. 6(월) 10:00 ~ 11.28(금) 17:00 (8주)

2. 진행절차: 종합정보시스템→수업/상적/상담→강의평가→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 가. 1.‘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별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피탁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 가. 수시 강의평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 나. 평가 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 다. 평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저장’을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첨조 및 유의사항

-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사지원과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4. 10. 6(월) ~ 10. 28(화)
- Level Test
 - 영어회화 : 10. 28(화), 29(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10. 29(수) 17:15
-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11. 3(월) ~ 12. 12(금)
- 개설강좌

구분	강좌명	단계	강의시간	수강료 (전형료 포함)
정규 외국어 강좌	영어 회화	Level 1 ~ 6	오전 7:45 ~ 8:45 (월~목) 오후 6:30 ~ 7:50 (월~수~목)	150,000원
	일본어 회화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 고급		
	중국어 회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개강 11.3(월)	프랑스어 회화	초급1 초급2	오후 6:00 ~ 7:20 (월~수~목) 오후 7:30 ~ 8:50 (월~수~목)	90,000원
	스페인어 회화	초급 중급	오후 6:30 ~ 8:00 (화) 오후 7:30 ~ 8:50 (화~목)	
N3	Book Club	오후 6:30 ~ 8:00 (화)	110,000원	
	Ted Talk	오후 6:30 ~ 8:00 (화)		
	Academic Writing Workshop	오후 6:00 ~ 7:50 (화~금)		
	JLPT 문법대책	오후 4:30 ~ 5:50 (화~금)		
N2	4급	오후 6:30 ~ 7:50 (화~금)	110,000원	
	3급	오후 6:30 ~ 7:50 (화~금)		
	B1	오후 6:00 ~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다-7위 실제 취업률은 저조-40위 밖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평판·사회진출도-교수연구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평판·사회진출도 부문은 지난해 8위에 서 9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평판사회진출도는 지난 수년간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률'이 대표적인 개선 대상 지표였다. 지난해는 40위 밖이었다.

올해는 중앙일보가 대학의 요청을 반영해, 예체능계열의 취업률을 제외한 '순수취업률'과 '유지취업률'로 나누어 지표를 산정했지만 순수취업률은 여전히 40위 밖이었다. 유지 취업률은 22위를 기록했다. 신입사원으로 뽑고 싶은 대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실제 취업률'과 '우리학교 학생에 대한 이미지' 사이의 괴리율이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기부하고 싶은 대학'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1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기부액 규모는 기부하고 싶은 대학 11위를 기록한 중앙대보다도 뒤쳐지고 9위인 한양대와도 약 50억 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103억 8,000만 원에서 지난해 98억 3,000만 원으로 기부금이 감소하기도 했다. 앞서 학생에 대한 이미지와 취업률 사이의 반비례 관계처럼, 대학에 대한 이미지와 기부금 증액 사이를 연결하는 성과가 필요한 셈이다.

▶1면에서 이어짐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외 다른 부문 역시 하락세다. 국제화부분은 37.65점(▼2.93점)으로 전년도보다 2계단 하락한 4위, 교수연구부분은 67.7점(▼1.11점)으로 순위는 동일했다. 평판·사회진출은 42.48점(▼0.13점)으로 소폭 하락하며 순위도 한 계단 떨어진 9위였다. 4개 부문을 분석해 볼 때 결국 우리학교의 부문별 지표 개선이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쟁대학 중 일부대학의 성적 '하락폭'이 더 커, 그 반사이익으로 인한 '작시'에 더 가까워 보인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이밖에 '항후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6위→8위), '입학 추천하고 싶은 대학'(7위→9위) 등의 하락 역시, 외부에서 보는 우리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최소한 지난해에 비해 악화됐다는 의미로 분석이 가능하다.

교수연구 부문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한 10위였지만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15위로 추락한 부분이 눈에 띈다. 계열평균 교수당 외부 지원 연구비 역시 2계단 하락했다. 이 역시 재정문제의 여파가 미쳤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가 지난해 5위에서 올해 15위로 추락한 것을 통해 재정문제의 여파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계열평균 '교수당 지적재산권 등록' 역시 11계단 하락했다. 반면 교수 당 기술이전 수입액은 작년 58억 9천440만원에서 60억 3천568만원으로 3.0% 상승해 순위가 작년 19위에서 올해 15위로 옮았다. 다만 한양대 141억 8천561만원, 성균관대 96억 6천994만원 고려대 84억 9천244만원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외에 계열평균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계열평균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지표는 모두 9위를 기록했고 상세지표도 상승해, 논문의 질적 개선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롯한 7개 대학 총학생회는 결과 발표일인 지난 6일 중앙일보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와 같은 대학평가를 거부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날 총학생회들은 '중앙일보 대학순위평가, 마음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교육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다른 처음의 취지는 이미 변질되었고, 대형화와 국제화라는 미명 아래 진리추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의 본분에 대한 막강한 남았을 뿐'이라고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대학의 책무를 따지고 평가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대학평가는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4% 감축안, 무소식이 희소식?

재정여건 - 학술역량 강화 사이 최적의 정원 찾기는 필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초안 공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대학본부 4%감축안, 연도별 감축계획〉

	2016년 감축정원(균등감축)			2017년 감축정원(차등감축)			1주기 총 감축정원
	서울캠	국제캠	소계	서울캠	국제캠	소계	
구조개혁 정원감축	58	59	117	39	39	78	195

〈4%감축 시 등록금 손실액〉

※ 등록금(760만 원×0.8, 물가상승분 고려) × 감축정원(195명) = 연간 약 12억 원

학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2017	-12억 원				-12억 원
2018	-12억 원	-12억 원			-24억 원
2019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36억 원
2020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12억 원	-48억 원
편제완성년도(4년후) 기준 총 누적액					-120억 원

페스는 59명의 정원이 줄어들고, 2017년에는 각각 39명씩 줄어들게 된다. 등록금수입은 2017학년도 12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누적돼 편제 완성년도인 2020학년도에는 약 12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감축의 지표인 '학과평가를 위한 기준안'은 현재 대학본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을 발표했다. 평가지표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선발 ▲교원 및 직원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재정·운영시스템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기여 ▲특성화 등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로 구성됐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지표구성과 반영비율 등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성평가 중심의 구성을 기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취업률이나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재학생 충원률 등 정량평가 지표가 대다수다.

2.4% 균등감축, 1.6% 차등감축

'안' 만나왔다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미래정책원 남순건 원장은 "4% 감축안은 정원감축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어차피 대학별 등급화를 통해 정원감축이 강제된다면, 자발적 감축을 실시해 정부 지원을 확보하자는 것이 대학 본부의 입장이다. 다만 4% 감축을 한 해에 몰아서 하는 대신 2년에 나눠서 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안에 따르면 2016년에 학과별 정원 비율을 고려해 2.4% 균등감축을 시행한다. 감축 인원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대학 본부가 발표한 것처럼 각 과들이 일률적으로 한 두 명씩 줄이도록 배분하는 방식은 균등분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박인(전자·전파공학 2010) 회장 또한 "소수의 입학정원인 학과가 입을 타격에 대한 대책과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학 본부의 결정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신문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필수적'이다. 대학주보 제1568호 2014.05.11. 1면》 우리학교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중 가장 많은 재직인원이 있는데 2013학년도 기준으로 34,763명이다. 취약한 우리대학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최대 재직인원을 그대로 유지해갈 것인가는 지금부터라도 구성원 간에 최우선 의제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은 187%로 등록금 수입보다 많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이마저도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 평균 교육비 지급률 265%(중앙일보 2014 대학평가 3~10위 대학 평균, 1면 참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타 대학에 비해 낮은 등록금, 서울권 최대 수준의 재직인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의 조합은 재정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비 지급률 187%

서울 상위권 대학 평균 265%

중앙일보 평가 기준 10위 내 대학에서 포스테, 한국과학기술원의 특수성, 서울대라는 국립대 프리미엄,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기부금, 중앙대, 성균관대와 같이 기업 후원을 기대하기 힘든 우리대학의 경우 최적의 정원은 장기적으로 내실을 기해야는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정원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학교의 재정과 학문적 역량 사이의 합수라는 구조적 문제 개선 방향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정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최적의 정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첫 번째는 해당 부서로부터 현실을 반영한 '장기 정원조정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성원 사이에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놀면서 취업준비하자! 내가 만든 '취업동아리' 신청안내

취업진로지원처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 만든 동아리를 지원합니다. 3인 이상이 모여 취업준비 모임을 하고 계시는 경희대학교의 학생 재학생 및 흥미생은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민족대학원 취업의 길을 밟았습니다. 현재 모임이 결성되어 스티커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이 있으시면 그 그룹 그룹으로 신청하시기도 되고, 스티커를 만들고 싶거나 어떤 동아리 그룹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취업진로지원처에서 적절한 동아리를 꾸려 드리겠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및 참여바랍니다.

- 취업동아리!!!! 이런 것이 좋다!!!
 - 혼자서는 둘렀던 정보 서로 교환(취업은 정보가 생명!!!)
 - 지지기자회, 면접 준비를 함께하면서 정장을 배우고 단점을 서로 보완
 - 교내 추천인용서 우대
 - 컨설턴트 및 인사담당자 친소자 클리닉
- 2. 자격요건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재학생+휴학생) 및 (13년 8월, 14년 2월, 14년 8월) 학부졸업생
 - 취업할 의사와 의지가 충만한 자
 - 적극적인 자세와 배움에 임할 자
- 3. 스티커 가이드 라인
 - 인적성 검사 공부
 - 시사상식관련 스피치
 -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 공모전 및 자격증 준비
 - 기업분석
- 4. 운영
 - 주 1회 이상 동아리 모임을 권장합니다.
 - 활동기간은 10월 24일 ~ 11월 1일
 - 면접준비 및 면접준비 학생 3인 이상, 약 100명

업무영 및 시행기간

취업동아리 모집	주요내용
취업진로운영	■ 특별 기업분석 및 인적성시험 면접 준비 ■ 컨설팅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및 인사담당자 면접준비 및 면접준비 학생 3인 이상, 약 100명
최종결과보고	■ 동아리별 활동 보고서 - 우수동아리팀 사상
6. 세부 운영 계획안	● 주 1회 이상 동아리 모임을 권장합니다. ● 활동기간이 끝난 후에도 동아리가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4년 10월 24일(금) ~ 10월 30일(수) 100명, 예치금 입금)	신청처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인턴부산처] [인턴부산처]-[연수신청처]에서 본 프로그램을 신청(저장) 접수 : leesy0317@khu.ac.kr 접수처 : 취업동아리 신청_학번_첨부 다. 등록리가 꾸려진 팀의 경우 : 개인별로 품질정보시스템에서 연수 신청 후 -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예치금납부 : ①인당 5만원 (과목수료 및 찰나 청탁 및 무수정 등수수정 등수수정)
8. 문의	● 예치금 납부 : 10월 24일(금) ~ 10월 30일(수) 100명, 예치금 입금 ● 신생수료와 상관없이 예치금 입금 순으로 신청이 원로됨 ● 예치금 납부한 먼저 입금할 경우 신청처리 되지 않음. 반드시 연수신청을 한 후에 입금해야 함.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내 취업진로지원처 최선규 선생님 (18번방) 전화 02-961-0167~8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0월 둘째 주(10.13 ~ 10.17)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놀면서 취업준비하자!

1. 캠퍼스 리크로링/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접

행사 명	모집부분	일 시	장 소
현대중공업상사 채용면접	해외영업, 경영지원 10.14(화)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코로나 채용설명회	국내기업을 위한 해외시장진출 및 시장 정부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내부 경영관리 10.14(화) 14:00~16:00		오비스홀 111호
한솔그룹 채용면접	201		

칼럼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황철수

지리학과 교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우리학교가 제출한 9개 사업단 중 2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단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의 '시공간 빅 데이터 융합 전문가 양성사업', 국제학과와 정치외교학과의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학문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으로 각각 7억 원과 10억 원을 매년 최대 5년까지 지원받는다. 우리신문은 황철수(지리학) 교수에게 '시공간 융합트랙 교과과정'에 대해 들어본다.

연재순서

- 1회 : 시공간 빅 데이터의 이해
- 2회 : 시공간 융합트랙 교과과정
- 3회 : 학부생 진로개발

시대 화두 '빅 데이터', 활용하는 인재 키운다

시공간 빅 데이터 사업단은 최근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시공간 빅 데이터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융합적이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리학과와 사학과는 1) 빅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컨버전스 기초 교육 강화, 2) 융합형 전공 강좌의 설계와 전문성 강화, 3) 취업, 진학, 창업 등 졸업후 진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의 강화를 주요한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리학과와 사학과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 중인 제도 안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빅 데이터 교육 트랙과정을 설치하였다. 물론 이 트랙과정은 지리학과와 사학과가 기존 학과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특성화 목적으로 맞도록 전공별로 전환하여 2014년 2학기부터 공동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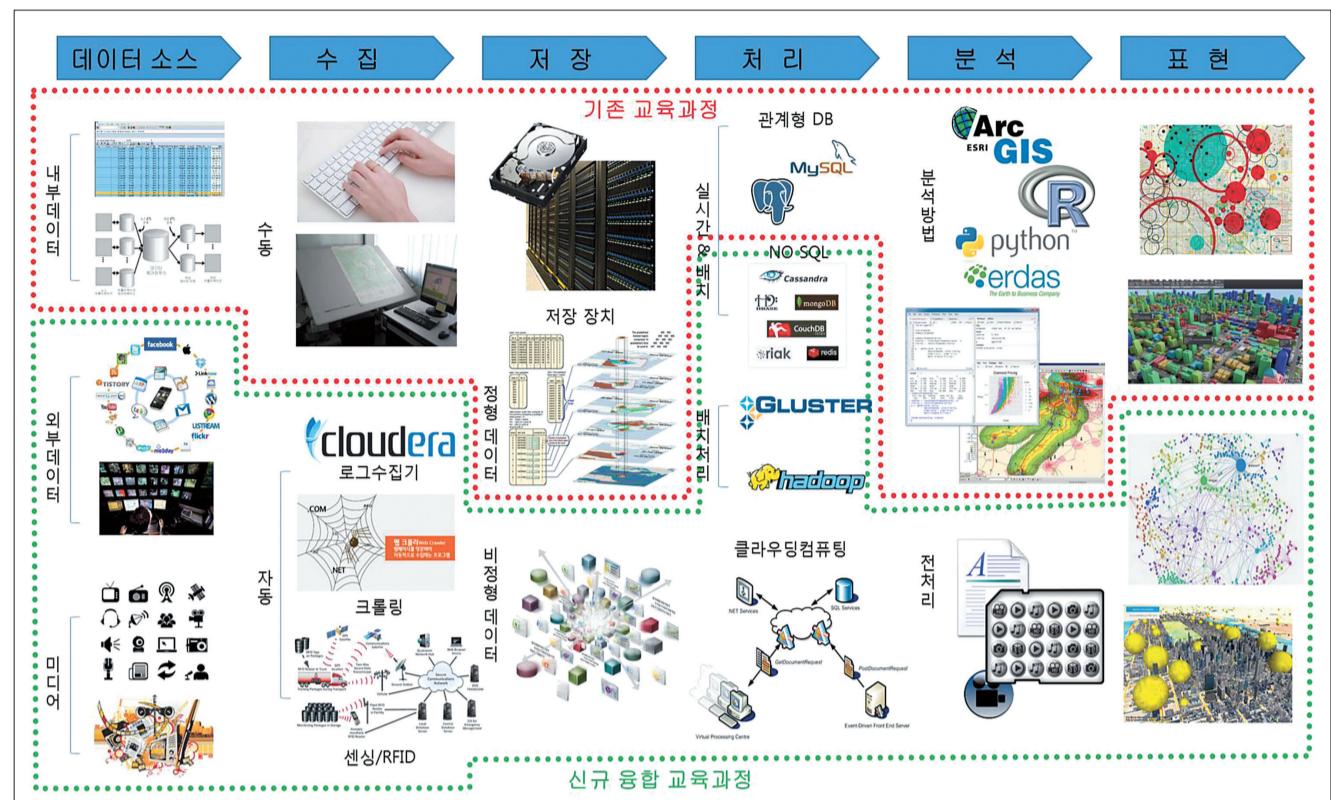
빅 데이터 특성화 트랙 지정과목

지리 · 사학 학생 75% 수강 중

시공간 빅 데이터 특성화 트랙은 지리학과와 사학과에서 현재 운영중인 교과과정에서 빅 데이터와 융합하기 용이한 교과목들을 학과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융합형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에 맞도록 엄격한 학사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지리학과에서 기준에 설치, 운영 중인 다른 전문트랙 커리큘럼과 비교하면 빅 데이터 트랙 이수를 위해서는 12개 강좌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특성화 사업 첫 해인 2014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실제 참여도가 높아 시공간 빅 데이터 특성화 트랙에 지정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지리학과와 사학과 재학생의 75%에 이르고 있다. 특성화 트랙으로 운영되는 강좌를 이수하는 학생들은 자체 장학 기준에 근거하여 특성화 특별 장학금이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학금은 학기당 약 1억원에 달한다.

본 사업단은 특성화 트랙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시공간 빅 데이터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학기 중에는 특별 멘토링 운영과 빅 데이터 분석 자격증 및 공모전 지원, 빅 데이터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을, 방학 중에는 실무 현장 인턴십 지원과 산학 연계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의 경우 현재 관련된 최고의 기업 현장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최고 수준의 실무 전문가를 섭외하여 실용적 교육이 실현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지리학과 및 사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혹은 석사학위자를 특성화 강좌별로 특별 멘토로 지정하여 수강생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각각의 멘토를 통해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무교육 기회 늘려

데이터 활용 · 시각화 기법 배울 것

학생들이 빅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 및 공모전, 혹은 경진대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학습공간이나 재정적 혹은 교육적 지원 역시 특성화 계획의 일부로 포함시켜 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본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에 교수, 코디네이터, 멘토 그리고 학부생까지 포함시켜 참여형의 세부 실천 항목과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적 발굴하고자 한다.

방학 중에는 실무 현장 인턴십 및 산학 연계를 통한 연구 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성화 트랙 과정을 이수중인 3~4학년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실무 현장 인턴십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다양한 MOU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공간 빅 데

터 유관 산업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4주에 걸쳐 빅 데이터 분석과정과 빅 데이터 시각화과정 등 2개 과정을 개설하여 정규 강좌의 이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현재 본 사업단은 시공간 빅 데이터 전문 기업과 실질적인 교류협력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빅 데이터를 매개로 한 산학 연계형 교육과 공동연구를 위한 MOU 협정을 빠른 시일 안에 체계화 예정이다. MOU 협정 내용에는 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빅 데이터 케이스를 선정하여 4주 과정의 빅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교육, 사업단의 빅 데이터 환경 구축 자문, 그리고 빅 데이터 연구 정보 교환 등이 포함된다.

산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교육은 크게 빅 데이터 분석과정과 시각화과정으로 구분되어 2개 과정마다 2주간씩 총 4주로 구성된다. 본 교육은 오는 11월에 지리학과와 사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 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겨울방학 동안 지리학과 내 시공간 빅 데이터 분석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빅 데이터 분석과정은 빅 데이터의 입문 단계로 빅 데이터의 이해와 함께 분석 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에 대한 학습이 진행될 것이다. 빅 데이터 시각화과정은 분석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 및 다양한 시각화 기법에 대해

서 학습이 진행될 것이다.

기존에 교육과정이 정형 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반면에, 특성화 트랙 교과과정과 방학중 산학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형·비정형 빅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웹크롤링(web crawling) 등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여 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 저장한 후 다양한 응용 케이스를 선정해 가치있는 정보를 새롭게 생산하는 것을 학습한다.

원활한 교육과정 위해

연내 고성능 장비 갖출 예정

본 사업단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기존 지리학과 지리정보 실습실을 시공간 빅 데이터 분석실로 개편하여 고성능의 컴퓨터 장비로 교체하여 실습을 진행중에 있다. 한두달 이내에 각종 서버 및 DBMS 소프트웨어, 비정형데이터 수집 및 분석 도구인 MOARA, 빅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MSTR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은 학생들의 빅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대학의 교양체육은 학생들에게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다. 또한 교양체육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행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 또한 높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체육의 순기능이 학점주의의 수강신청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체육의 참여 기회 상실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여가생활의 기틀까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 강의 중인 '조깅과 워킹'은 걷기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동작을 기본으로 한다.

걷기는 건강을 목적으로 팔을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지속적으로 걷는 운동으로 신체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는 유산소성 운동이다.

이를 통해 바른 자세 유지, 올바른 운동습관 함양과 건강증진 그리고 운동의 생활화가 본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다.

'조깅과 워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 캠퍼스가 캔버스요, 두 다리가 펜이 되어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써가는 수업이다.

아마 이를 알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걷기

하고 있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보았을

것이다. 어려운 전공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상쾌한 공기와 마주하며 걸어보길 권한다.

그중 스포츠워킹은 일반 걷기

으로 인한 부상이나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및 안전수칙 방법,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동영상 활용 등을 수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깅과 워킹은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보건대학원(미국의학협회, 2012)에서 연구한 결과 "매일 1시간 정도 걸으면 비만 유전자에 대한 영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런던 국립심장포럼(2011)에서도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걸으면 심장마비 위험도를 37%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워킹과 조깅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 배우기 쉬우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운동을 제안한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침대와 가까워질수록 무덤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자! 이제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밖으로 나와 조깅과 워킹의 즐거움을 느껴보자. 산들바람과 푸른 하늘 속에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깅과 워킹' 수업이 되길 바란다.

교양리포트⑬
[조깅과 워킹]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걸음걸이



홍대석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깅과 워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워킹을 통해 올바른 운동습관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다. 특히 건강을 목적으로 팔을 의도적으로 흔들면서 지속적으로 걷는 과정을 통해 신체에 부드러운 자극을 줘 강생의 건강증진도 도모한다.

아마 이를 알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걷기하고 있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보았을 것이다. 어려운 전공 공부를 잠시 접어두고

상쾌한 공기와 마주하며 걸어보길 권한다. 조깅과 워킹의 매력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운동에 비해 경제적이며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워킹의 종류는 걷는 속도와 기술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에 따라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산책, 일반걷기, 스포츠워킹, 노르딕워킹 그리고 워킹의 꽃 조깅 등이 있다. 그중 스포츠워킹은 일반 걷기

과와 다른 자세로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구부려 허리 위로 살짝 엎으며 손은 긴장을 풀고 작은 물체를 잡듯 주먹을 쥐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며 속도는 약 시간당 5km 이상으로 걷는 것이다.

본 강의는 걷기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걷기기술, 심박수와 맥박수를 이용한 걷기 트레이닝방법 그리고 다양한 걷기 운동을 통한 실기수업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운동



두총과에는 두총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비교하기 쉽지 않다

두총, 시대 흐름에 따라 방치되다

우리학교 꽃 이야기 (16)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자

동의마당에 큰 키의 나무가 두 그루 있다. 은행나무들 사이에서 키는 비슷하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이 나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나무를 처음 본 것은 아마도 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였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나무의 이름을 알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꽃도 찾았지만 힘들고, 열매도 특이하게 생겼다. 잎은 우리가 흔히 보는 나뭇잎과 별로 다르지도 않고, 특징도 알기가 쉽지 않았다. 흔한 듯 하면서도 쉽게 보지 못했던 궁금증이 많았던 나무다.

나무줄기는 회색에 가깝고, 잎은 약 15cm 정도 되며, 열매는 10월 이맘때쯤 볼 수 있는데 긴 타원형이며 날개가 있어서 바람에 쉽게 날아갈 수 있게 생겼다. 열매나 잎을 자르면 하얀색의 섬유질이 나온다. 이 나무를 열심히 관찰하고 도감에서 찾아본 결과 두총과(Eucommiaceae)의 두총(Eucommia ulmoides Oliv.)인

것을 알게 되었다.

두총과에는 두총 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두총과 비슷한 식물들은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서 화석으로 발견 되는데 이들은 신생대 초기인 팔레오세부터 마이오세에 걸쳐서 6종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두총 하나만 남아있다.

현존하는 두총의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야생상태의 두총은 이미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보거나 약재로 사용되는 두총은 거의 재배를 통해서 명맥이 이어지고 있어서 자연상태의 두총은 거의 사라져 멸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총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두중(杜仲)이라는 사람이 이 나무로 차를 마시고 깨우침을 얻게 된 것을 유래로 한다. 원산이 중국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두총이라고 사용하였으나 한문으로는 杜仲(두중)이라고 쓴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나무껍질에 실 같은 투명한 섬유질이 많아서 목면(木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티백(tea bag) 차가 처

음 들어 왔을 때 다양한 종류의 차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 지금도 남아 있는 대표적인 인기 차인 녹차나 둉굴레차와 함께 이 두총차가 인기 있는 차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티백 두총차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둉굴레차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차 종류였다. 수요가 많아보니 두총을 재배하는 농가도 꽤 많았다. 지금도 가끔 산을 다니다보면 울창한 숲인데 같은 키, 같은 두께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관리도 안 된 채 자라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이 두총의 재배지이고,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대단위로 나무를 심어서 재배를 하고 경제성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

두총의 효과는 혈압강하, 항노화, 콜레스테롤강하, 항염, 진정, 진통, 면역 조절, 혈액응고, 자궁수축, 항알레르기, 항균작용 등이라고 보고돼있다. 또 한편에서는 정력증진 기능도 있다고 한다. 두총에는 Geniposidic acid (제니포시딕 산)이

있는데 이 성분은 두총과 치자나무 (Gardenia jasminoides J.Ellis)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연구하여 항스트레스 조성물에 대한 건강식품 조성을 특허도 있다.

두총차는 두총나무 껍질을 4월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채취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이때 실같은 섬유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얇게 썰어서 술로 족족이 적시어 실같은 것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서 쓴다. 주로 차로 마시는데 맛은 약간 달면서 매운 맛이 살짝 느껴진다. 두총차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증상으로 부종, 코피, 혈변, 구토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몸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작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의사나 의사의 조언 없이 개인적 판단에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 할 수 있다.

동의마당에서 두총이 어떤 나무인지 찾아보자 한다면, 열매나 잎을 잘라 섬유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힌트를 주자면 사자상의 꼬리가 가리키고 있다.

새로운 지평을 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종족은 다 제거되고, 길들여진 평균적 인간만이 남아 인류는 퇴락과 병약화의 길을 걷고 있다.

주의의 도덕, 강자의 도덕은 그 인간의 위대성 때문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선악을 넘어선 완성된 인간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니체는 인간의 왜소화와 평준화를 통해 나타나는 현대의 허무주의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우리는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 희망, 아니 인간에 대한 의지도 잃어버렸다. 이제 인간의 모습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이것이 허무주의가 아니라면, 오늘날 무엇이 허무주의란 말인가? … 우리는 인간에게 지쳐있다.”

니체는 노에도덕의 승리로 마감된 세계사를 조망하며 글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 정녕 모든 싸움은 끝난 것인가? 니체의 희망과 기다림을 공유하며, 가치의 창조자인 강자와 주인 도덕의 재등장을 원하는 이들은 그의 후속 논문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참여마당

유윤석
(화학공학 2011)



봉사활동을 넘은 ‘배려’

후반기 채용 시즌, ‘스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다. 학점, 토익, 공모전 경험 등 수많은 스페 중 빼지지 않는 것 하나가 봉사 활동이다. 봉사활동의 종류와 대상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활동은 ‘장애인’을 돋는 일이다. 적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몇 주 동안 장애인의 생활을 돋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봉사활동만으로 장애인에 대해, 특히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 알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해 다니는 재활원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최근 견학한 미얀마의 재활원과 우리나라 국립재활원을 비교해봤다. 최근 미얀마는 외교를 개방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가 무역을 강조하며 발전하던, 과거 7·80년대의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재활원 운영에서는 오히려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이 상당하다. 장애인들의 정보 수집 경로와 접근성 등이 특히 그렇다.

미얀마 국립재활원의 입원 요금과 재활 요금 등 모든 것은 무료다. 의문이 들 수 있다. 재활이라는 것은 분명 돈이 쓰여 지는 것인데, 무료인 만큼 ‘수입’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미얀마는 국제기관의 지원과 모금을 토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ICRC(국제적십자의원회)와 JICA(일본 국제협력사업단)이 지원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재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미얀마 정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 국립재활원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립재활원은 상당수 보험에 따라 요금이 다르며 병원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무료로 운영 중인 미얀마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무료와 유료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국립재활원의 입실과 퇴원 기준에서 ‘배려’라는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실은 환자 주치의 소견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주치의 소견서 내용에 따라 환자의 국립재활원 입실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얀마 역시 대학병원에서 교수의 소견서를 토대로 환자의 입실을 결정하지만, 이밖에도 추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우선 처음 사고를 겪은 환자를 중시한다. 과거 사고로 인해 자신의 재활 기구를 교환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처음 사고를 당해 ‘재활’ 등에 무지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국립재활원에 근접해 있는 환자들, 즉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받는다. 재활여건의 차이를 배려한 것이다.

이런 차이만으로 미얀마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재활수준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얀마 국립재활원의 운영정책에 담긴, ‘배려’는 분명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앞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재활 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

▶1면에서 이어짐



“우리는 인간에게 지쳐있다”라고 현대의 허무주의를 진단한다

니체는 기독교적 도덕의 기원을 강자에 대한 약한 자들의 원한 감정에서 찾고 있다.

된다. 도덕에 있어서의 노예의 반란이 성공한 것이다.

니체 평생의 테마 중 하나는 노예 도덕의 승리로 인한 “인간의 왜소화와 평준화”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 유럽의 병이다. 생명력 넘치는 자기긍정과 위대함을 향한 도약, 파괴적인 두려운 힘을 가졌으나 그 힘 자체가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취업의 길을 찾자!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며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 버렸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중에서

- 삶의 길을 묻는 그대 : 1·2·3학년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할 그대 : 4학년 1:1 취업진로 지원
- 대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졸업생
- 도움 줄 내용 : 인사희망기업 선배매칭, 자기소개서 리뷰, 기업별 면접정보 기업제주제표관련 설명 등 사회를 보는 눈
- 도우미 : 노동섭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장 겸 학생생활상담팀장)
윤재훈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계장)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상담예약신청 → 취업선택 → 상담가능일확인 후 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 노동섭 팀장(rohds@knu.ac.kr)
윤재훈 계장(jhyoon@knu.ac.kr)
- ※ 종합정보시스템 예약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신청완료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n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장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상담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스포츠 / 문화



단행본 대출은 꾸준히 줄고 있지만 전자도서관 접속 횟수는 증가하고 있다

‘독·e-book의 계절’은 언제 오나 단행본 대비 전자책 수 3.8% 수준

전자 도서관 운영 점검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독서의 계절 가들이 성큼 찾아왔다.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의 열람실은 더욱 붐비고, 필요 도서를 대출하는 학생도 늘어난다. 하지만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의 1년간 전체 단행본 대출권수는 감소추세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2013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는 연간 449,868권, 2012년 394,458권, 2013년 381,670권이 대출돼 지난 3년간 전체대출권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다. 2011년에는 연간 340,852권, 2012년 293,373권, 2013년 277,738권으로, 단행본 대출이 줄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2013년 서울캠 전자도서관 접속 횟수는 전년도 대비 160,700건 증가했다. 국제캠 역시 홈페이지 접속 건수 산출방식이 변경되기 전인 2011년과 2012년 사이, 전자도서관 접속횟수가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더불어 서울캠 기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전자책 로그인 횟수도 2011년 27,747회, 2012년 32,988회, 2013년 81,665회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PC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생활환경의 변화가 ‘단행본’보다 전자책(e-book)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자책 이용 저해 요인
이용불편(30%) 책 부족(22%)

하지만 이런 추세와는 달리 전자책 이용 환경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 2013년 기준 양 캠퍼스 중앙도서관이 보유한 국내책 장서는 1,959,330권인데 비해 전자책은 국내책 장서 수 대비 전자책 수는 3.8% 수준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검색이 지원되지 않아 전자도서 제조업체별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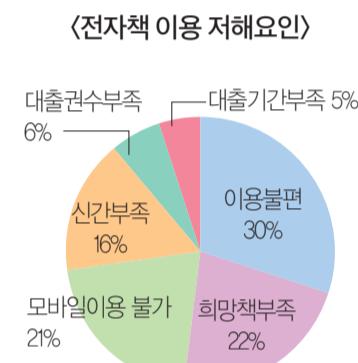
매년 도서관 이용자 DB교육을 실시하지만 전자책 이용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도 나온다. 김예영(철학 2014) 양은 “이용법을 따로 교육받은 바가 없고 아는 선배에게 전해 듣고 사용해본 적이 있다”며 “책을 검색했더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가 많아, 그 이후로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캠 중앙도서관이 지난해 9월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이용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이용불편’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고 ‘희망 책 부족’이라는 응답이 22%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결국 앞서 지적된 문제로 인해 전자책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지고, 반대로 주변 환경은 전자책에 더 적합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매년 폐기되는 책 1만 8,000여 권
공간부족, 전자도서관 고민해야

‘공간’이라는 문제를 감안해도 전자책 중심의 도서관운영은 더욱 필요하다. 지난해 폐기한 단행본 수가 1만 8,000여 권에 달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캠 중앙도서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신축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간 내에 이뤄질 사업이 아닌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예산의 경우 전자책에 따로 배정하지 않고, 단행본에 배정된 예산을 끌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측은 “전자책의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 계획을 세워 전자책의 공급을 점차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필요성에 비해 전자책을 중심으로 한 ‘운영’은 갈 길이 멀다. 독서의 계절이 깊어질수록 ‘변화’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다.

축구부 왕중왕전 진출

U리그 전반기 리뷰

김유림 객원기자 csyong1617@naver.com

축구부가 지난 10일 명지대와의 ‘2014 카페베네 U리그(U리그)’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3-2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자력’으로 올라가 그 의미가 더 크다. 앞으로의 왕중왕전을 미리 예상해 보기 위해, 현재 축구부의 전력을 분석해봤다.

#1. 단단한 공격 작업

우리학교의 김광진 감독이 말한 올해의 키워드는 조직력이다. 타 학교에 비해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팀축구’는 포메이션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김 감독이 주로 꺼내든 카드는 4-2-3-1이다. 4-2-3-1 포메이션은 미드필드진을 두텁게 가져가며 패스 플레이를 해나가는 시스템이다. 이 중심에는 주장 엄진태(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있다. 볼기핑력과 패싱력, 그리고 넓은 시야까지 겸비한 엄진태 선수는 탄탄한 빌드업과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가능케 했다.

#2. 날카로운 측면 공격

중앙이 두텁고 안정적이라면 측면은 빠르다. 엄진태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배급해주면 측면 공격수들이 빠른 속도로 공을 낚아채 드리를 돌파에 이어 슈팅을 하거나 크로스를 올려왔다. 김정세(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는 공간침투에 이어 짧은 크로스를 올리며 위협적인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밖에 전반기 오른쪽 윙백을 맡았던 김한솔(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나, 재활 끝에 복귀한 유동원, 김성훈(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 역시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3. 전방의 루키들

축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골을 만들어내는 1선과 2선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고승범(스

포츠지도학 2013) 선수의 압박이 뛰어나다. 또한 박인혁, 이건철(이상 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들은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큰 신장을 활용해 상대 골문을 위협한다.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눈에 두드리는 스타플레이어는 없다. 하지만 개개인의 장점을 갖고 선수들이 모여 특유의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진가는 시즌 동안 빛났다. 왕중왕전에서도 우리학교만의 ‘팀플레이’를 기대한다. 아래는 축구부 김광진 감독과의 일문일답.

- 왕중왕전 진출이 확정됐다.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올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해였다. 선수도 26명밖에 없었기에 자원이 부족했다. 이처럼 여건은 어려웠지만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었다. 더불어 코칭스텝과 선수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됐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아무 탈 없이 리그를 마무리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 같다.

- 시즌 동안 어떤 선수가 주문한 역할을 가장 잘 소화했나?

A. 모든 선수가 다 잘해줬다. 특히 주장 엄진태 선수를 비롯해서 김정세, 김성훈, 유동원 4학년 4인방 선수들이 제 역할을 소화해줬다. 덧붙여 고승범 선수와 박정수 선수가 깨소금 역할을 해줬다.

- 왕중왕전까지 남은 3주 동안 무엇을 준비할 계획인가?

A. 우선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수비할 때 전방 압박, 틀을 맞추는 게 부족하다. 공격 루트 또한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왕중왕전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



대한민국 대표 세탁전문 브랜드 크린토피아 ONLY!!

국가가 인정한
4년연속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1등급
(2011~2014, 중소기업청 주관)

전국 120여개 본지사 및 2,200여개 대리점



2014 중소기업청 주관
4년 연속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1등급 선정